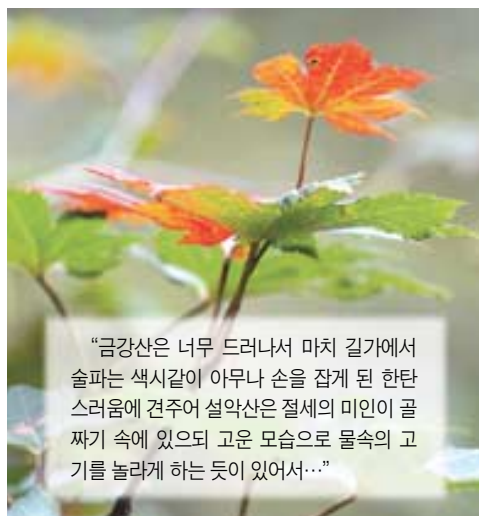




단풍철 압도 설악산 천불동



“금강산은 너무 드러서 마치 길가에서 술파는 색시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스러움에 견주어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었고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듯이 있어서...”



천불동

## 千佛의 사자후 단풍으로 물들겠네

연봉은 마치 천분의 부처님 같고, 비선대 계곡물은 모든 근심 걱정 버리라 하네  
힘준한 길 올라 금강굴에 닿으니 발 아래 펼쳐진 광경이 극락정토에 온 듯...

육당 최남선은 <설악기행>에서 설악산의 웅장하고 수려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갖가지 기암괴석이 가을 단풍과 어울려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했다. 하지만 최남선이 노래한 '절세의 미인'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다. 천불동(千佛洞) 계곡에 가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천불동은 계곡 좌우로 칼날같이 솟은 연봉과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마치 천개의 불상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짜이르지는 절벽과 폭포로 이어지는 깊은 계곡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이다. 1955년 서울문리대 산악회가 첫발을 디딘 뒤부터 그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졌다. 안전시설이 설치된 1969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위험한 곳에 철 계단과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걸린 수많은 폭포, 겨울보다 맑은 연못에 가을 단풍이 어울려 저면 천불동은 말 그대로 한편의 명화다. 단풍이 화려한 10월이면 천불동은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가득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천불동 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 코스의 중간 계곡을 말한다. 최근에는 설악동을 거쳐 비선대 쪽과 울산바위가 갈라지는 통일 대불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많다. 금강교를 지나 우측으로 흐르는 계곡물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산행을 시작하면 햇개나무, 물푸레나무, 복자기, 당단풍 나무 등이 인사를 한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도량이니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온갖 걱정 근심을 버리라고 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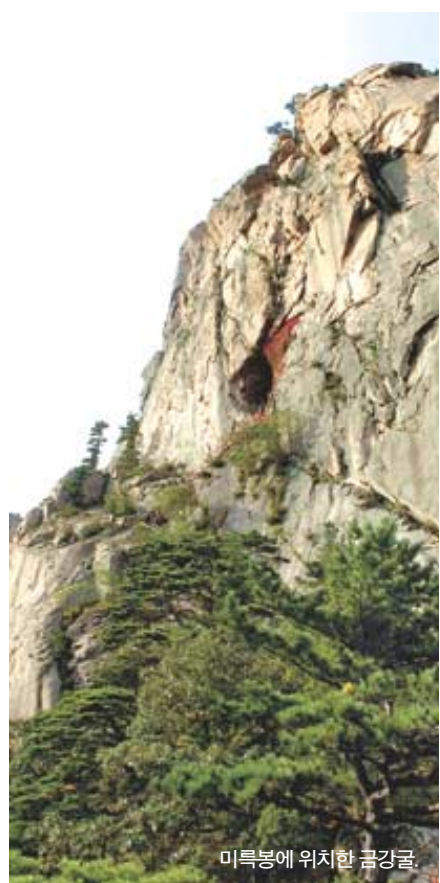
계곡을 따라 조금 걸었다 싶으면 바로 와선대(臥仙臺)에 당도한다. 하지만 와선대를 알리는 표지판없이 휴게소가 자리를 지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

설화에 의하면 마고 선인(仙人)이 이곳에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를 누워서 감상해 와선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마고 선인은 와선대에서 300미터 올라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등천했다고 전해진다.

비선대는 비천상을 연상하게 만든다. 비천은 불국(佛國)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는 천인(天人)이다. 비선대에 서면 성덕대왕 신종 등에 장식되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천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비선대에서 좌우로 보면 두개의 봉우리가 있다. 왼쪽은 미륵봉, 오른쪽은 선녀봉이다. 미륵봉은 장군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미륵 부처님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특히 미륵봉 중턱에는 원효 스님이 금강경을 가지고 수행했다는 동굴 암자 금강굴이 위치해 있다. 험준한 산길과 높디높은 계단을 올라가 금강굴에 당도하면 정면으로 천불동 계곡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 보는 듯 하다.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1Km지점에 맑은 유수가 고인 곳이 있다. 매우 깨끗하고 아담한 담이다. 옛날 문수봉이 형성될 때 문수보살이 이곳



미륵봉에 위치한 금강굴.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고 해서 문수담이라고 부른다. 주불인 석가모니는 어디 계실까 하는 우문(愚問)을 하며 고개를 들어보면 저 멀리 석가봉이 보이는 듯하다. 천불동 계곡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대청봉 옆으로 석가봉과, 문수봉, 보현봉이 좌우 보초로 설악산을 지키고 있어 마치 수미산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문수담을 지나면 이호담(二湖潭) · 귀면암(鬼面岩) · 오련폭포(五連瀑布) · 양폭(陽瀑) · 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우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특히 다섯개의 폭포가 연이어져 있다는 오련폭포 일대의 경치는 천불동계곡 전체에서도 가장 빼어나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수량으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가 장관이고 가을철에는 단풍이 폭포와 기암 괴석과 아름다운 풍관을 연출한다.

천불동계곡의 아름다움은 단풍을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 9월 하순 대청봉(1,708m)에서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은 하루 40m씩 아래로 내려와 10월 중순이면 천불동 계곡을 새빨갭게 물들인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던가. 서로 어울리지만 똑같지 않은 천불이 오색 단풍과 함께 화려하게 수놓는 것같이 천불동 계곡의 가을은 마치 서방 극락 정토인 불국토와 같다. 설악산/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미륵봉(왼쪽)과 선녀봉(오른쪽)이 마주 보고 있다.

찾아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현남 IC - 7번국도 - 낙산사 - 설악동 - 신홍사

**중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불교를 알기 쉽게**

테이프 12개 (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포함) 값 78,000원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루 널리 알려진 중범스님의 불교 입문서, 원시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선불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타의 기본교의와 수행은 물론 불교의 개요와 역사, 석가모니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중범스님의 설법집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불교 설법집**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 전국 대형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1. 경봉(鏡峰) 큰스님 값: 14,000원  
문빛장을 만져 보거라
2. 경산(京山) 큰스님 값: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 청담(靑潭) 큰스님 값: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 구산(九山) 큰스님 값: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 해암(海庵) 큰스님 값: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 해안(海眼) 큰스님 값: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 청화(靑華) 큰스님 값: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 관응(觀應) 큰스님 값: 9,000원  
화염의 바다
9. 묵담(默潭) 큰스님 값: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11517 10월 출간 예정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